

미 증시, 부진한 기업실적과 국채수익률 상승으로 하락

김석환 seokhwan.kim@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국채금리 상승

•미 증시는 금일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과 장기 국채 수익률의 상승, 중동 정세 불안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 이 날 주택착공 및 건축허가 건수, 주간 모기지신청지수 등 주택관련 지표가 다수 발표되었는데, 각 지표마다 상반된 모습을 보여. 국제 금 가격은 증시 변동성 확대 및 중동 지정학적 불안 영향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최근 3개월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 (다우 -0.98%, 나스닥 -1.62%, S&P500 -1.34%, 러셀2000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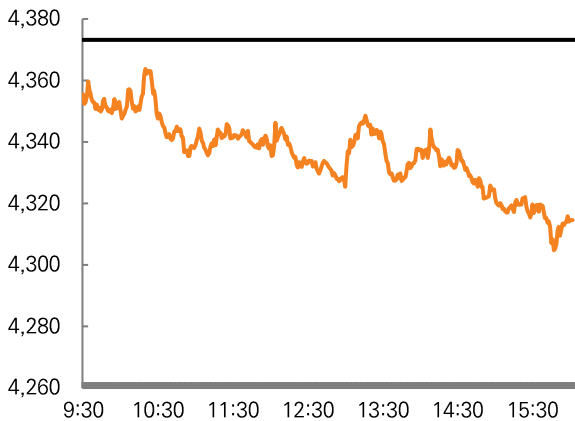
특징 종목: 테슬라, 엔비디아 ↓

•S&P 500의 주요 섹터 중 에너지(+0.93%)와 필수소비재(+0.39%)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는 모두 하락하며 광범위한 매도 압력 나타나. 특히 소재(-2.58%), 산업재(-2.43%), 경기소비재(-2.33%), 부동산(-2.18%) 등이 2% 넘는 하락세를 보이며 증시 하락을 견인. 소재 섹터 내에서는 앨버말(-9.79%)이 급락을 하였는데, 밴코브아메리카가 리튬 시장에 대한 어려운 전망을 내놓음과 동시에 실적 전망을 낮췄기 때문. 앨버말 이외에도 마틴 마리에타(-5.20%), 불칸 머티리얼즈(-5.20%) 등도 약세. 반면 P&G(+2.58%) 가격 인상이 매출 둔화를 상쇄하며 전년대비 이익이 15% 증가했다고 발표. 애보트(+3.79%), 나스닥(+3.99%) 및 스테이트스트리트(+2.04%)는 호실적에 상승.

한국 증시 전망: 금통위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97%, MSCI 신흥 지수 ETF는 1.5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54.11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80% 하락. KOSPI는 0.7~1.0%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중국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반대로 미국의 경기는 양호해 국가간, 지역별 경기에 대한 자신감 괴리 점차 확대. 이는 통화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돼 미국의 국채수익률이 연일 상승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는 중. 국내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은 전일 6bp 상승한 4.29%로 연중 최고수준에 근접. 지난 해, 10~11월 단기 금융시장이 불안 해졌을 당시 기록한 4.5%~4.7%와 큰 차이 나지 않아. 그렇기에 금일 오전 나올 금통위 결과(동결 우세)에 주목하며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62.60	+0.10	상해종합	3,058.71	-0.80
KOSDAQ	808.89	-1.40	홍콩항셱	17,732.52	-0.23
DOW	33,665.08	-0.98	인도센섹스	65,877.02	-0.83
NASDAQ	13,314.30	-1.62	유로스톡스 50	4,105.86	-1.12
S&P 500	4,314.60	-1.34	영국	7,588.00	-1.14
캐나다	19,450.70	-1.23	독일	15,094.91	-1.03
일본	32,042.25	+0.01	프랑스	6,965.99	-0.9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국채수익률 상승

미 증시는 금일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과 장기 국채 수익률의 상승, 중동 정세 불안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 이 날 주택착공 및 건축허가 건수, 주간 모기지신청지수 등 주택관련 지표가 다수 발표되었는데, 각 지표마다 상반된 모습을 보여. 국제 금 가격은 증시 변동성 확대 및 중동 지정학적 불안 영향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최근 3개월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

하락: 실적부진, 국채수익률 ↑, 중동 정세 불안

S&P 500 등 주요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제와 달리 금일 실적 발표에 나선 기업들은 생각보다 부진한 결과를 내놓으며 증시 하방 압력을 키워. 우선 모건스탠리는 경기둔화에 따른 투자은행 부문의 이익이 2020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고 밝혀. US뱅크, 시티즌스 파이낸셜 등 몇몇 지역은행들은 지난 해보다 이익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혀. 또한 유나이티드 항공은 4분기에 중동전쟁과 연료비 상승 영향으로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혀 부진한 주가 흐름 나타내.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는 투자심리 악화에 기여하며 매물 출회로 이어져.

美 국채수익률은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상승. 특히 10년물 수익률은 4.9%, 30년물은 장중 5%를 돌파하며 각각 2007년,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증시의 하방 압력을 키워. 이 날 13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장기채 입찰이 예상보다 강한 수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10년물 이상의 장기채 수익률 상승 압력은 지속돼. 이는 견고한 美 경제의 펀더멘털과 정부의 채권 발행 증가, 채권 기간프리미엄 등의 상승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특정 이유 하나로 꼽을 순 없지만, 과거 역사 및 통계로부터 배울 수 있는 단 한가지는 주가와 금리가 ‘동시에’ 상승했던 적은 없었다는 사실임을 상기할 필요 있음.

지속되는 美 국채수익률의 상승으로 주요 장기채 ETF의 가격도 상장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중. 블랙록의 iShares 10-20년 국채 ETF(티커: TLH)와 iShares 20+ 국채 ETF(티커: TLT)의 주가는 2007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올해 각각 14억 달러, 18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이 유입됐지만 주가는 13%, 15% 넘게 하락.

Eco 리뷰: 주택관련지표

이 날 발표된 주택시장 관련 지표들은 엇갈린 결과를 보여. 우선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MBA 모기지신청지수**는 전주대비 6.9% 감소해,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여. 이러한 감소로 인해 모기지 수요량을 측정하는 지수는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반면 MBA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는 전주 7.67%에서 7.70%로 6주 연속 상승하며, 매주 23년래 최고치를 경신.

9월 주택착공 및 건축허가 건수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 **주택착공건수**는 전월대비 7.0% 증가하며 연율 135.8만건으로 시장 예상 138.3만건을 하회했지만,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착공건수가 증가해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시킨 점에 주목. 또한 **건축허가건수**는 전월대비 4.4% 감소했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5.7% 감소보다는 덜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으로 모기지 금리 상승 지속이 수요에 영향을 줬기 때문.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테슬라, 엔비디아 약세

S&P 500의 주요 섹터 중 에너지(+0.93%)와 필수소비재(+0.39%)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는 모두 하락하며 광범위한 매도 압력 나타나. 특히 소재(-2.58%), 산업재(-2.43%), 경기소비재(-2.33%), 부동산(-2.18%) 등이 2% 넘는 하락세를 보이며 증시 하락을 견인. 소재 섹터 내에서는 앨버말(-9.79%)이 급락을 하였는데, 밴코브아메리카가 리튬 시장에 대한 어려운 전망을 내놓음과 동시에 실적 전망을 낮췄기 때문. 앨버말 이외에도 마틴 마리에타(-5.20%), 볼칸 머티리얼즈(-5.20%) 등도 약세. 유나이티드항공(-9.65%)이 4분기에 중동전쟁과 연료비 상승 영향으로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히자, 델타항공(-4.44%), 아메리칸항공(-4.86%) 및 사우스웨스트항공(-4.19%) 등 항공주 동반 약세 흐름 보여. 엔비디아(-3.96%)는 AI칩에 대한 대중(對中) 수출 규제 강화 우려가 지속되며 씨티, 모건스탠리 등 일부 하우스에서 투자 의견을 유지한 채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 이외 AMD(-2.83%), 텍사스인스트루먼트(-1.58%), 인텔(-1.17%) 등 반도체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자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1.76%)도 하락. 모건스탠리(-6.78%), US뱅크(-4.36%) 및 시티즌스 파이낸셜(-5.57%) 등 전년대비 이익 감소를 발표한 금융주 약세.

반면 P&G(+2.58%) 가격 인상이 매출 둔화를 상쇄하며 전년대비 이익이 15% 증가했다고 발표. 애보트(+3.79%), 나스닥(+3.99%) 및 스테이트스트리트(+2.04%)는 호실적에 상승.

상품 및
FX시장 동향

국제 금 가격 강세

국제 금 가격은 증시 변동성 확대 및 중동 지정학적 불안 영향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최근 3개월래 가장 높은 수준인 온스당 1950달러까지 상승. 다만 장중 달러 강세폭이 확대된 자, 금 가격 상승폭은 소폭 둔화.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 높아질 것으로 전망.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30만 배럴)보다 큰 449만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과 중동 정세의 불안이 지속되자 1% 중반대 상승을 기록하며 2주 만에 최고치 기록. 장중 3% 가까이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일부 석유 관련 제재가 ‘(조건부) 거의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美 국무부 고위 관리의 발언이 전해지며 상승폭 축소. 이는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 유가 하방 압력을 키웠기 때문.

한국
주식시장 전망

국고채 금리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97%, MSCI 신흥 지수 ETF는 1.5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54.11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80% 하락. KOSPI는 0.7~1.0%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중국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반대로 미국의 경기는 양호해 국가간, 지역별 경기에 대한 자신감 괴리 점차 확대. 이는 통화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돼 미국의 국채수익률이 연일 상승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는 중. 국내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은 전일 6bp 상승한 4.29%로 연중 최고수준에 근접. 지난해, 10~11월 단기 금융시장이 불안 해졌을 당시 기록한 4.5%~4.7%와 큰 차이 나지 않아. 그렇기에 금일 오전 나을 금통위 결과(동결 우세)에 주목하며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



美 장단기금리차 -31bp까지 축소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75	대형 가치주 ETF (IVE)	-1.42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2.12
소매업체 ETF (XLY)	-2.33	소형 가치주 ETF (IWN)	-2.08
온라인소매 ETF (EBIZ)	-2.01	대형 성장주 ETF (VUG)	-1.59
미국 인프라 ETF (PAVE)	-3.72	중형 성장주 ETF (IWP)	-1.91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2.17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1.90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1.19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3.07	미국 국채 ETF (IEF)	-0.47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4.06	하이일드 ETF (JNK)	-0.52
바이오섹터 ETF (IBB)	-2.10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3.15	물가연동채 ETF (TIP)	-0.21
반도체 ETF (SMH)	-2.00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8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704.21	+0.93	+4.99	-0.34
필수소비재	719.09	+0.39	+1.56	-5.01
헬스케어	1,512.50	-0.90	-0.60	-1.36
유틸리티	300.57	-0.94	-0.56	-8.13
IT	2,964.73	-1.23	-2.44	-1.20
커뮤니케이션	229.16	-1.59	-2.13	-0.48
금융	550.32	-1.85	-0.74	-4.95
부동산	211.61	-2.18	-3.03	-7.07
경기소비재	1,243.93	-2.33	-3.04	-7.15
산업재	851.56	-2.43	-2.86	-3.94
소재	485.38	-2.58	-2.55	-4.90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8.32	+1.68	+5.55	Dollar Index	106.565	+0.30	+0.70
브렌트유	91.50	+1.55	+6.37	EUR/USD	1.0537	-0.38	-0.78
천연가스	3.06	-0.91	-9.65	USD/JPY	149.92	+0.07	+0.50
금	1,968.30	+1.37	+3.97	GBP/USD	1.2142	-0.34	-1.39
은	23.10	-0.06	+3.96	USD/CHF	0.8991	-0.12	-0.32
알루미늄	2,182.00	+0.23	-1.45	AUD/USD	0.6337	-0.44	-1.20
전기동	7,972.50	+0.03	-0.64	USD/CAD	1.3711	+0.46	+0.87
아연	2,436.50	+0.64	-1.62	USD/RUB	97.9712	+0.02	-0.34
옥수수	492.00	+0.77	+0.97	USD/BRL	5.0594	+0.41	+0.10
밀	580.25	+1.88	+4.54	USD/CNH	7.3266	+0.01	+0.35
대두	1,311.00	+1.21	+4.79	USD/KRW	1,349.60	-0.30	+0.81
커피	158.05	+0.64	+7.01	USD/KRW NDF1M	1,354.11	+0.21	+1.2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904	+7.01	+34.60	스페인	4.057	+5.30	+24.00
한국	4.285	+6.00	+14.80	포르투갈	3.657	+4.60	+20.30
일본	0.809	+2.80	+4.00	그리스	4.424	+6.60	+20.60
독일	2.924	+4.20	+20.60	이탈리아	4.982	+9.30	+31.3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